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論說 日本勞農黨의態度 —共產派排斥問題—

日本勞農黨第三回中央執行委員會는 지난二十六七兩日에 大阪中島公會堂에서 開催되엿섯는대 第一重要한問題는 入黨範圍問題이엿섯다 日本의勞働運動界에잇서서 總同盟側과評議會側이兩兩相執不下하는바잇는것은 周知의事實이다

內外綿職工 千五百名罷業 晝休時間을要求하고

(上海三十日發) 內外綿第九工場職工千五百名은暑氣를참지못하야午後二時間의休憩를要求하고昨日午後부터罷業을開始하엿는대會社側은午後에歸하기싸지工場을閉鎖할旨를今朝에發表하엿다더라

日佛通商條約交涉 石井大使로부터佛內閣에

西班牙의 聯盟規約修正 修正案의批准書를寄託

滿洲各地의 馬賊被害多大하야 在留日人等의大困境

長野事件과 各政黨의蹶起 眞相調査次代表派遣

昨年中全朝鮮 農產物生產額 總額十三億四千萬圓 前年보다一億七千萬圓增加

咸平農組創立 執行委員外지選擧

靑陽水害詳報 死傷者十餘人

全女高期成 委員會

棉赤壁虫發生 羅州郡一帶에

桃山洪水와 逕至하는同情金 熱血同胞의同情金 繼續되기를바란다 目不忍見八百餘名罹災民

安岳記者團 創立總會

間島讀書會 臨時總會 重要事項決議

勞友俱樂部 定期總會 重要事決議

河校總拜堂 兒童聖經學校 學用品無料提供

苗浦避病院 寄附金徵收難

大同江面衛生組合의無智

盛況裡에開幕된 宣川庭球大會 第一日少年團競技는 老將宣川公普軍快勝

下三黨 批判演說禁止 當地警察에서

金浦學生 巡講盛況 同情金도多大

第二回 西鮮庭球大會 安岳에서開催

貯金通帳名義問題로 面民이面所에殺到 釋王寺寄附金問題

蔚山金融組合 金利引下認可

晉州에開催될 南鮮蹴球大會 青年少年을中心으로 八月四五兩日間開催

盛況을豫期하는 南鮮少年庭球

咸南二大水電 不遠間實現

倭館少年會 總會又禁止 對策을講究中

間島蹴球團 歡迎競技 咸南端川에서

錦山研樂團創立

地方經濟 最近元山物價

上半期元山 食物移出入 …大概는增加

納凉音樂演奏大會

第三回郭山少年懸賞雄辯大會

後援 東亞、時代、朝鮮三支分局 郭山青年俱樂部 郭山留學生學友會

社告 慶州支局

寸鐵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aturday, July 31st, 1926.

A CHINESE RULER RUNS AWAY

By Rayna Raphaelson

V

Then he departed. After he had called, thus, upon four or five of his intimates, he went to a refuge in the Legation Quarter.

Next morning all Peking knew that Tuan's regime was ended, that the old man had somehow eluded the soldiers of the Nationalist army, and was safe under the pootection of foreign flags.

It seeems an incredible story. But if it is rememtered that three days after the deposition of the old marshal another change of forunes took place on the kaleidoscopic political screen of Peking, forcing the Nationalist army to leave the city; that after the army had gone the enormous iron gates of this ancient city were closed behind them; that today it is only those stout relics of a former age which make it possible for life to go on in the capital in seeming peace—it may, then, seem a little less incredible that in 1926 the nation's head should evade a modern army by calmly disappearing through a labyrinth of underground tunnels built in days when walls were more than a temporary protection against invaders.

Eight days after this quaint escape old Tuan was back in his great palace, issuing mandates, again for the moment the ostensible ruler of China.

文欄

走透의瑞祺段 (完)

特別客車三輛에分乘하고 三百團員昨夜에出發

려행안내사와및본사의안내로 目的地로向한消夏探勝團一行

경성려행안내사(京城旅行案內社)와및본사의주최인 소하탐승단(消夏探勝團)은 단원모집사항을발표한지얼마되지아니하야참가신청이뎡원삼백명에 달하엿슴으로 만원이후의 신청은 부득이 거절하는수밧게업섯는데 동단원일행인 신사숙녀삼백명은려행안내사와 밋본사사원들의 안내로 작삼십일밤열시오십분 경성역에서 특별객차세채(客車三輛)에분승하고 무사히출발하엿더라

三坂通巡査狙擊事件 有力疑嫌者逮捕

룡산서의대활동한내용 ◇連累者도多數

긔보=룡산경찰서에서는 이십구일 새벽부터 포천(抱川)사법주임이하 전부가출동하야 경성역에다가 형사십여명을 배치하고일방으로 형사대의일부는 사방으로 활동을 개시한결과삼판통(三坂通) 사건의 유력한혐의자를 톄포하얏는데 사건의내용은 다른련루자가 만흔듯한관계로 극비밀리에 취됴를진행하는중 이라더라

滔滔濁流로 飛行艇破損

승객의사상은업다

경성관수동비행정상회(京城觀水洞飛行艇商會)경영의 비행정 일척은 경성과 양평(楊平)사이의 교통을 연락키위하야지나간 이십삼일 오전놉시경에 승객(乘客)이십팔명과 양평우편소(楊平郵便所)에 체송하는 우편물을 가득히실고 왕십리를 떠나서전속력으로올나오다가광주군구천면 암사리(巖寺里) 부근압헤이르러사나운여울목을올나가든중산뎨미가튼물결이 배압흐로 닥치는바람에키(舵)를매이엿든텰줄이 끈허지고 홍수가 배를음습하야배는거의업흐러질번에 뒤편에 잇는「푸로페라」의 동력을 정지식히며다행이 전복되지는안코 승객과선부도무사하엿다는데이로인하야 배의 긔계가고장이생기며 긔「푸로페라」가부러저서올나가지못하고 경성으로 향하엿다더라(광주)

又復當局에陳情

민론이갈수록놉하가는 開城池波川改修工事 高麗町住民一同

긔보=개성지파천 개수공사(開城池波川改修工事)를이미뎡하야노흔 계획에조차서 이년동안이나 계속하야착착공사를 진행하야나려오든것을 별안간 차내버리고 또다시새로운 공사계획을설계한후 그에조차서 예뎡계획을변경코자하야 그변태뎍 태도에는 일반여론이 비등됨은 물론이오 일반시민이 이중으로손해를보게되는데는 면협의원(面協議員)들까지도 동정을하야일동이련서로 당국자에게일반시민의여론을조처달다고진정을하얏다함은이미보도한바와갓거니와그후로또다시지파천공사를긔뎡계획에좃지아니하고새로설계하야일반의 문뎨가되는 신계획에좃는다하면 가장만은 손해를입는디역이되는고려뎡(高麗町)내의 주민들은 수차회의를한후에리필근(李弼根)씨를대표로하고 뎡민유지일백여명의 련명으로장문의진정서를작성하야 이십오일에개성군수(開城郡守)와및송도면장(松都面長)에게뎨출하는동시에 또한정몽주(鄭夢周)선생의 후손이되는일반정씨들은 선죽교독만일에 조금이라도훼손하는날에는가만히좌시할수업는바이라고 전국뎍으로정씨대회를 열어가지고 철뎌히당국을 규탄할예뎡이며 미듬은갈수록놉하가더라(개성)

大同江又復增水

二十九日에六尺八寸 그러나별념려는업다

평남디방에는 지난이십팔일부터 이십구일오전열시경까지 또다시 폭우가 버렷슴으로대동강은 이십구일오전중 륙척팔촌가량의증수가 잇섯고 밤에더욱증수하는형편이나 비는 동일도와쾌청하엿는바 금후비가 안오면경성의그것가튼 홍수는 안볼것으로일반은안심한다더라(평양)

◇비온뒤의강바람

電料減下問題와 電氣會社態度

要領不得의 인하률사지결뎡하이때 신청을늦게하야또문뎨

경성뎐긔회사의 료금감하 문뎨는 삼십만시민이 손을곱아발표를하로라도 속히하기를 바라는터인바 경성뎐긔회사에서는 이미 인하률(引下率)을 결뎡하얏슴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러히 감독당국에 신청(申請)을 더듸게하며 지금에 일으러서도 오히려 이를 데출하얏는지 아니하얏는지 도모지요령을 알수업는상태이며 감독관령인 톄신국(遞信局)의 태도도 감독관령으로서의 진의(眞意)를 알수업스며 더구나책임을 가진관령으로서회사와의 사이에구차한타협(妥協)을 하고자하는것은 관령의 위신으로보더라도 감심할수업다고모유지는말하더라

二八女子溺死

경긔도진위에서

지난이십팔일 오후한시경에 경긔도 진위군병남면신대리(振威郡丙南面新垈里)해안(海岸)에서 이팔청춘녀자의 시톄가잇는것을 부근농부사람이발견하고 즉시 소관평택경찰서에 보고하엿슴으로소관경찰서에서는 태전(太田)부장(部長)과 권태목(權泰穆)씨가 검안(檢案)하엿는데립회(立會)도공의 검안한바에의하면 년령은 십오세가량이고 죽은지는 일주일을 경과한듯하다하며 시톄를 보와서는 익사로인뎡되엇다는데 주소와성명은알수업다더라(평택)

瑞麟洞에복바지

경성부에서보호중

지난이십구일 오후열시경에 시내서린동 륙십이번디김우신(金又信)의집대문안에 생후삼개월가량되는계집아이를내버린것을동가하인이 발견하고 대경실색하야곳 소관종로서에 급보한결과 동서에서는구보부장(久保部長)이현장에이르러 검시한결과 주머니에는 생녀월일을 적은것과『이애는 어머니가업서미음(粥湯)으로일개월을 길러왓섯는데 지금서부터는 당신네 떠남싸가치길러주기를 바란다』는편지한장이 드러잇섯다는데 어린아이는경성부로인도하엿다더라

安岳暴雨로

가옥이문허저

황해도안악(黃海道安岳)에는지난이십일날부터 조곰식 오다말다하는비가 아즉도 계속하여오는중인데 지난이십팔일 새벽부터는 큰비가 나리여오전팔시경에 시내비석리(碑石里) 이백삼십삼번디에사는변홍급(邊弘汲)씨의집이문허젓는바손해가불소하리라더라(안악)

安岳의殺人事件

취중에서로싸호다가살인 檢事와公醫가出張檢屍

황해도안악군대원면당전리(黃海道安岳郡大遠面堂田里)에사는 김도성(金道成)(四?)이와리승엽(李承燁)리승양(李承亮)세사람은 지난이십칠일에 안악경찰서에서 인치하고 살인사건으로 엄중한취됴를하는중 이라는데 이제그내용을들으면 지난이십칠일에 대원면덕산리(德山里) 에사는 황익하(黃益夏)란자와전긔세사람이 안악읍장에장보러왓다가 도라가는길에 안악면사현리(沙峴里)에 잇는 엇던주점(酒店)에서오후두시경에술을먹다가 술이취하야 사소한일로 전긔김도성과 황익하와서로싸홈니되며 전긔리승엽 리승양 두사람이만 류하엿스나 듯지안코다투다가 황익하가 무수히란타를당하고자긔집으로업혀가서그이튼날인이십칠일오전에사망하엿슴으로이급보를밧은안악경찰서에서는전긔세사람을 해주디방법원재령지텽 안뎐검사(安田檢事)와안악공의 송영찬(宋榮燦)씨가현장에 출장하야 사망한황익하의 시톄를해부한결과 머리에가타여러곳이 상하엿슴으로 살로판뎡되엿다 더라(안악)

現內閣致命傷

長野縣의暴動과 金子文子自殺로 정당각파들이이러나서 政府의責任을問題삼을뜻

장야현(長野縣)에서이러난폭동사건(暴動事件)과금자문자(金子文子)의옥중자살사건(獄中自殺事件)으로인하야 동경정부당국은크게당황하야그선후책을강구중이라는데전긔두중대사건으로인하야귀중량원(貴衆兩院)의각파는정부에대한여론이이러날길을뜻하다하야현내각은내각의책 치명상(致命傷)을입어 임문네까지 이러날는지 몰으리라더라(동경뎐보)

一女四處婚姻

자긔딸리용하야 금품을편취한녀자

아산군 온양면 온천리 (牙山郡溫陽面溫泉里)에서 음식뎜(飮食店)영업하는김언양(金彦陽)이라는 나희사십여세된 늙은녀자는 거금삼십년전에 경긔도 수원군마도면으로 부터 당디온천에이주하야 거금 이십년 부터 십사오세된 유녀와 딸 한아를가지고 당디최모를 다려사위라는 명의로정하고잇든중 모것도 바랄것이업든지 지나간 해에 전긔최모를거절한후 또다시주소불명한 리모를 다려다가역시 한방법으로 약간의금전을소비케한후에 얼마아니되야 또보내고 다시오천리의 장모를엿시 다릴사위로두엇다가 보내후에 곱년이월에와서는 당디 온천리 리모를 유인하야 남에게잡혀집을찻고 밧갓채로 집하나를짓게하고 그후에 여러가지로금품을소비케하야 차일피일 오면바 지나간 이십팔일에와서는또뎐거뎡을 하엿다는데 경찰에서는 풍속방해로 됴사중이며일반은 이악마를 장래를주목중이라더라(아산)

水中怨魂된病婦

媤母와男便虐待로 첫번서집에서는소박을맛고 둘재번서집에서는투신자살

運命에咀呪바든一女性

지난이십칠일 오전 다섯시경에 충남홍성군광천면 광천리(忠南洪城郡廣川面廣川里)압내물속에 이십세청춘을일코 도라온미인이잇섯다 그는홍성군홍동면 운룡리(洪城郡洪東面雲龍里) 김영문(金永文)의 셋재딸 김봉순(金奉順)(二〇)으로 사년전에 동면반월리(同面半月里)주모(朱某)에게로출가하엿다가 우연히 병이들어오래동안 신음하는중 병의치료는고사하고 몰이여 친정으로돌려보내고 전긔주모(朱某)는 다시장가를 들엇스나 온순한녀자의맘이라 엇절수업시 긴한숨과 또거운눈물로 이세상을 저주하면서 지내오더니 행인지불행인지 금월구일(今月九日)에 동군광천면 광천리(同郡廣川面廣川里)삼백칠십삼번디 장긔영(張基永)(三三)에게로 다시시집가게되엿다 원래장긔영은 안해가업슴은아니나 딸한아까지나흔 안해를 고부간불화로친정으로쫏고 김봉순을 맛고다시장가를들게되여다려와본즉 원래병들엇든몸이라 아모리치료하엿다한들 엇지완인과 가트리요 그럼으로 시모되는이는 며느리를 어드면 편히안저서부려먹으랴고 하든차 병든남어지못함으로 온갓학대와 구박을하다못하야 나중에는 심지어다려올때준돈이십사원을도로가저오고 친뎡으로가라고 날마다구박이 자심함은아니라 남편되는장(張)도따라서행정해젓스되 이녀자는 죽어도 이집에서죽어이집귀신노릇을 하리라고 굿게결심을하엿다 죽든 몃칠전부터는 시모의구박과 학대가더욱심하며 남편도 역시내여쫏치리라고 애를쓰며 죽든날새벽에 그친정김영문(金永文)에게가서다려가라고말할차로나가는것을보고 봉순은 그집을 뛰여나와그와가티 다시오지 못할영원의나라로 간것이라더라(홍성)

日人病客自殺

불상한그의죽엄

지난이십구일 오전한시경 평양부팔천대뎡(八千代町)십삼번디도면중길(網田寅吉)(三二)은삼개월전부터 위장병을알아 신음의자유를일허오던중에 생활난을 못익이여 자긔집에서마츰내 목을매고죽엇다더라(평양)

죽은안해살어와 平和한家庭生活

원한품고그안해가투신후 다시살어와서남편이회께 濟州島의一片奇話

지난십칠일에 대판(大阪)을 떠난 데이군대환(第二君代丸)은 이십구일오전세시경에 제주해협의 험한물길을헤치고 제주도 성산포(濟州島城山浦)를향하야 살가티다라나고 수백의손님은 끈한꿈속에잠것슬때에엇더한묘령의녀자가소복(素服)을곱게입고배머리에의지하야창중에반작이는무수한별들을바라보며흑흑늣겨울고잇섯다 이를발견한선원은 그리유를뭇고백방으로위로햇스나 죽시듯지안코 그의울음소리는출렁거리는 파도와가티 더욱더욱처량하야질뿐이엿다

못쏙하늘 이훤ㅣ하게밝어올때에 데이군대환은 무사히 성산포에 도착하고 이곳에나릴선객은 제각기짐작을 수습하노라고 분주하엿슬때에 별안간엇더한사람이 가려라고오던 녀자 한명의 간곳이업슴을 발견하고 즉시 대소동을이르켜 백방으로 차자보앗스나 그는벌서 이세상사람이아니고 마직막으로 부모형뎨와여러친구에게남기고간피눈물이흐르는유서(遺書)한장이 쓸쓸하게 그의행장과가티 선실한모통이에 잇슬뿐이엿다 죽그는 제주도제주면건입리(濟州島濟州面健入里)에거주하는량창보(梁昌保)의 안해 홍순히(洪順姬)(二三)로

판명되여 이사실을그의 친정과 시가에통지하얏다 누구나사람의 죽엄을 슬퍼하지아니하랴마는 그의친모는 밋칠듯이날뛰며 일시는인사불성이 되엿섯다 그러나그의 죽엄의령(靈)이라도 위로하려고 시가에서는초혼제(招魂祭)를지내고집안사람이 눈물을흘리며 그버마츰 홍순히가 사럿다는회소식을 전하는자가 잇서 집안사람은 울던눈에 우숨이넘처흐릿섯다 이제그내용을듯건댄 전긔홍순히는 수년전에 량창보와결혼한후 청춘의

달큼한꿈 을꾸다가남편이 대판에간이후로는 소식이돈절하고 그의생활은 곤궁하얏스나그는 강경한의지로제주성내(城內)에잇는 부인야학(婦人夜學)에서 공부하다가 그래도남편을 그리는 연연한마음은 금치못하야 녀자의 약한몸을 도라보지도안코 멀고먼 대판엽에 남편만잇고 차저갓다 그러나 량창보의 태도는 전과갓지아니하야 산설고물선은 만리어역에서 무정하게도 그를 박대함으로그는

천추원한 을품고눈물을 흘리며 제주도본가로 도라오다가 세상의무정함을저주하고 덧업는세상에 구구한생명을 유지하는이보다 차라리 죽엄의나라로향하는것이 조흐리라고 깨닷고 그와가티 창랑(蒼浪)에몸을던첫던것이다 그래도 그의운명의줄은 영영끈치지 아니하엿던지 그가투신한지 오륙시간뒤에그근해(近海)에서고기잡던배의구원을바다 다시 삶(生)의길을밟게되엿다는데 그부부의장래는 다시지난겹은막이 열리고 맛다운생활을 하리라더라(제주)

天慘地愁, 目不忍見 禮山一帶水亂狀況

死者二十六人、重傷者十九名 流失四十四戶、全半潰三百戶 田畓損害十七萬圓

루보=충남례산(忠南禮山)일대의대홍수상황은 대개긔보와 갓거니와 그후됴사한바에 의하면 신양면 (新陽面)에 사자십칠인 중상자 십오인 광시면(光時面)에 사자팔인 중상자삼인 대흥면(大興面)에 사자일인 오가면(吾可面)에 중상자일인 신양면에 류실가옥이 이십륙호전괴삼십오호 반괴사십오호 상상침수배이십삼호 광시면에 류실가옥 십호 전괴 륙호반괴팔호 상상침수십팔호 상하침수오호 대흥면에 류실가옥이호 전괴이호 반괴삼호 상상침수십칠호상하침수팔호 응봉면(應鳳面)에 류실가옥이호 삽교면(揷橋面)에류실가옥일호 전괴륙호 반괴오호 침수륙십호오가면에 류실가옥삼호 전괴이십륙호 반괴삼호 례산면(禮山面)에 전괴삼호 반괴십사호상상침수 삼십일호 상하침수칠호 대술면(大述面) 에전괴삼호반괴사호 고덕면 (古德面)에 전괴일호 상상하침수륙호 신암면(新岩面)에 권괴십팔호 반괴사십호 상상침수칠십삼호 상하침수삼십사호 농작물손해면적(農作物損害面積) 이십일만구천칠백륙십여평 농작물손해금십륙만오천구백칠십칠원가량인바 리재민원천 오백명중에도 더욱참혹한바는 광시면대리(光時面大里)에서부부간과그자녀사남매여섯식구가사던터에별안간 그처와 이남과장녀이녀네사람을 누른물결에 빼앗긴김희주(金熙周)(三六)와동리에서부부와 이녀 네사람이 물결을 따라차최를멀리감춘 김사필(金思弼)의남은가족의 호텬애통하는형상은초목도늣기이며 사던집과뎐토와 량식이며 애지중지하던가족까지 물결가티 이러바리고장래엇지할도리가업서 가티못죽은것을 한탄하며 실성통곡하는신양면 여래미리 차동리하천리(新陽面如來味里車洞里下泉里)일대 천여명의 정상은참아볼수업더라(사진은례산수해참경)

救濟會急遽組織

면장과경찰서장의발긔로

이십년 이래처음보는 대재란을 당한례산군 당국과 경찰당국에서는지난 이십팔일 오전열시에 십이면면장을 소집하야 리재민구제회를 조직한바 동군수정지모(藤枝模)씨와경찰서장이발긔인이 되고각면장급 각면주재소 수석순사와각면내유지수인을망라하야 착착진행하기로 결의한후 반괴이상류실가지 삼백호는 매호에 십원식 반괴이하 삼백호에는 오원을 주기로하야 구제금최저한도 삼천원으로뎡하고 이것을 십이면에 각각분뎡하야 팔월오일내에 몰수히모집하기로결뎡되엿다더라 古德面二百五十圓應峰面二百圓鳳山面三百圓新岩面二百圓揷橋面二百五十圓德山面二百圓揷橋面三百圓光時面二百圓大興面百五十圓新陽面百五十圓大述面百五十圓禮山面七百圓(以外官公吏는各別로決定)

兩面長의盡力

리재민을구조

별항보도와가튼사정을본신양면장리병국(新陽面長李秉國)씨는 서속열두말을내여 이십구일에 위선리재민에게 분배하얏고응봉면장리순규(應峰面長李舜圭)씨는 가옥과시량을류실한동면후사리김동운(同面後寺里金東雲)에게 의연금이십원을거두어주엇고다시 근동일반에게지휘하야 각각집몃단 연목한개식가지고와서 불일성지로 집을지어주게하얏다더라

臨津江의增水로

坡州郡坡平面의大水亂 다행히인축사상은업섯다

수일간그치엇든비는이십륙일저녁부터 또다시오기시작하더니 조곰도쉬이지안코 계속하야이십칠일에는 감수되엿든 림진강이 증수하기시작하야 십팔척이나 증수되엿스며 각각으로증수하기 시작하야 이십팔일에는 삼십오척이라는 놀나울만한 수자를 나타내여림진강의 데일가까운 파주군파평면 률곡리와금파리두포리(坡州郡坡平面栗谷里金坡里斗浦里)근방에는 전답을위시하야전부물니덥혓섯스나 일반이 원악매년의 경험에의하야 미리부터안전지대로 피난하엿섯슴으로 다행히인축의 사상은업섯다 …은 내이지아니하엿다는데 이십팔일에 이르러서는 문산강일대에몹시불기 시작하더니 한나절이 기우러부터는 밀리는조수와가터 것잡을새업시 닥치어들어 문산리만 침수가옥이십삼호에달하엿스며 시가에서 부터 뎡거장까지 통행하는 월롱도로에도 길우네뽐이 삼척삼촌에달하야 통행이일시는 두절되는동 자못 형세가 위험하엿슴으로 문산청년회와 파주경찰서 소방대등 각단톄에서 비상한 활동을한 관계로 아직까지는인축의사상은업섯더라(문산)

痴男淫女

본월 이십륙일오후여섯시반경에 시외 서빙고(西氷庫)뎡거장압헤서남자가녀자의 머리채를잡고 이년아경찰관주재소로가자 이놈아 다라나지마라하는 소리에 구경군이 삼사오겹이나 둘러싸어 일대소동을 이르키엇는데 이녀자는고양군한지면 서빙고리(高陽郡漢芝面西氷庫里)일백구십일번디 권한문의처유언년(三一)으로팔년전 열비살때에 시집을와서 팔자식까지나코 사라왓스나 항상의합치못하야 작년도에 당디면사무소에리혼계까지하려갓섯는데 면장의 엄중한설유로 그대로도라와 사라오든중 지난음력보월십오일밤에 모떡소소사로잇는김덕산(三一)이와서빙고뒤산중에서 밝은달빗에 희롱하면서간음하다가 동리사람에게 들키어 우숫거리가되엿다는말을본부권한이가듯고이와가티소동하여당자를붓잡고 경찰관주재소로구두고소를하려갓섯스나 주재소에서는 리혼수속을맛친후 정식으로 고소를 제긔하는것이 필요하지 그와가티 함부로 란타치는 말라는 설유로 돌리여부냇는데 본부측에서는 이와가티 불량녀의 장래를 경계하기 위하야 정식으로고소한다하고도라갓다 더라(한강)

四蹴球團리그 最終日의激戰

對東京戰은上海勝捷 조선대고려전엔조선대승

중앙긔독교청년회와본사주최의상해, 동경, 조선, 고려사단톄련합축구리그전(聯合蹴球리그戰) 의데삼일인 삼십일예뎡은사정으로인하야 오후네시반부터 서병의씨의 주심아래 상해대동경전(上海對東京戰)으로비롯되야 열리엿는데 동경군 잘방어하얏스나상해군의 긔묘한파싱과 민활한공격으로 전반(前半)에일뎜을 어든채도 타임이되매 드듸여이대일로 상해군승첩하니 련일피곤한 상해군의 긔세는 원상을회복한 감이잇섯다 다음에는 조선대고려(朝鮮對高麗)전으로 비롯되바 비가부실부실나리기 시작하얏스나 량군비를 마저가며 힘써싸와 조선군전반에삼뎜을엇고 후반에 또삼뎜을 어듬에반하야 고려군은 뎜이업슴을탈취하야 결국륙대이로 조선군대승하니 이오나리든비가첨첨굴게나리는가운데두고국방문단환영리그전의막은이로써원만히마치엇더라

六月中犯罪數

평택경찰서관내

륙월중평택(平澤)경찰서에검거된범죄수는다음과갓더라

◇刑法犯罪
▲窃盜罪=八件九人
▲傷害罪=三件五人
▲詐欺罪=二件三人
▲橫領罪=三件四人
▲贓物에關한罪=一件一人

◇特別法犯罪
▲通貨及證劵模造取締法違反=一件一人
▲森林令違反=一件一人
▲鐵道營業法違反=一件一人
▲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違反=一件一人

總計二十件人員二十六人 (평택)

利川에서食土發見

쌍에서나오는흙이로되 쫄깃쫄깃하고맛이됴타

지난이월중순에 리천군백사면현방리(利川郡栢沙面玄方里)에사는빈민(貧民)들이군계(郡界)인려주군흥천면상대리(驪州郡興川面上垈里) (구명으로다리)에서 장자기(長者基)라부르는 곳에서 식토(食土)를발견하엿다는데 그자세한말을들은즉 그식토의빗은 연분홍은색(銀色)이며 덩어리덩어리로한이업시나오는데 그덩어리를 잡어떼이라면 쫄깃쫄깃하여잘떼여지지안코 유명한광채(光彩)가난다하며 그대로먹으면쫄깃거리고 쌉쌀하고도 향긋한맛이잇슴으로 마치담배 인백이듯키 인이백인다고한다 그런데 이식토를일광에 밧삭말리여 매돌에다가갈게되면 소맥분보다 더유한대 그대로물에너흔후 세시간후에 물을따루어바리고말려서 밀가루(麥粉)를 식토에 삼분지일가량만석근후 떡(餠)이나술(酒)이나국수(麵)모든것을만들면무슨음식에든지비할수업다는데빈부(貧富)를물논하고구미(口味)를이르켜에는이식토로별식(別食)을맨드러먹는다고한다그리고여일계속하야이식토를먹으면오히려쌀밥보다도 든든하고소화(消化)도량호하며 자로신데도 건강하여짐으로 그동리에서는 누가알가하여 숨기는중인데이십칠년전경자(庚子)년에도 그근방에서식토가 나서삼십여호가 흉년으로 사경에다죽게되엿든바 그식토를 먹고긔탄업시사러난일도잇다고하더라(리천)

生活難으로 縊首自殺

라주의로인이

전남라주군영산면관뎡리(全南羅州郡榮山面官丁里) 오백칠십일번디 리인화(李仁化)(五二)는지난이십사일오전열두시경에자긔집에서노끈으로목을매여자살하엿다는데이제그원인을들은즉 그리인화는집안식구가팔인이나되는데생활이곤난함으로 삼순구식도 못하며 근근히그날그날을 지내오던중에 지난오월경부터 우연히 신병에걸려지금까지 고통함을 비관하야 강박한이세상을버리고죽은것이라더라(라주)

洪城地方의洪水

일시는대소동이엇다고

홍성(洪城)디방의장마비는간단업시 여러날을두고 계속하야지난이십이일 오전뎡시반부터 눈코들사이업시 쏘다지는 폭우가동네시경에야 비로소 감하게되엿는데 폭우가시작되지 한시간쯤되야 산골서나리질리는 물결은 전시가를위협하면서 몰은점 시가로범하게되엿다 남산공원편(南山公園)수문동으로밀려들어오는물은 벌서 이궁대서소(二宮代書所)중미신문뎜 (中尾新聞店)에들어오기시작하며 부근가옥(附近家屋)은침수(浸水)케되엿다 써가마침 밤중임으로 인하여 일고요하고 다만폭우로쏘다지는 비소리뿐 이엿는때 비소리중으로 들리는 경종소리가 시민의고막을 울리게되자 소방대(消防隊)와 일반주민(一般住民)들은 총출동을하게되엿다 벌서침수가옥이 백여호요도괴가옥도 잇섯스며 광천통로 (廣川通路) 뎨방(堤坊)이 무너지고 또남쪽은 물바다를이루엇고 월산(月山)서 나려오는물은 북문리(北門里)를 쓰러더며 역시물바다를 일우게되엿는데 피해가적지 안타더라

堤坊崩壞防禦 가구운반에전력

자든눈을 비비며 모여드는군중은 창황망조하야 엇지할줄을모르고 광천동뭇에방이 무허짐을보고 몰려가방어에 노력하며 일방으로는 복서러침수된가옥의 가구운반에 필사노력을한결과 인명과 가축에는관계가업섯더라

電信電話도不通

폭우로 인하야 각처면선이단절되는동시에 뎐신과 뎐화가불통되게되며 따라서 통신이두절되엿더라

金馬川氾濫

홍성읍내 시가압을지나 흐르는금마천(金馬川)은오서산(烏棲山)부근서 흘러나려오는물과합수되게되여서 이십이일 오전두시부터 증수되기 시작되여전점 제방을너머들어와 일망무제의물바다를일우엇든바 동오시경부터감수되엿더라

廣川水害尤甚

지난이십이일오전한시부터쏘다지는폭우로광천구시가와신시가사이에 흘러가는하천물이 전점부러서구시가가 전부 침수되엿다 수족을놀릴수업시 밀려드는물은 방안까지 들어오게되엿스며 류실가옥이일호 붕괴가옥이일호 반괴가옥이오호 침수가옥이일백삼십여호며수차(水車)와교량(橋梁)도로(道路)가다수히류실되엿더라

食事供給

홍수로인하야 가옥이며 세간의복등을류실하고 거진옷을벗어내여 눈물이압흘가리워 갈바를몰느는수백의군중은 서로붓들고 창텬을바라보며 무엇을 원망하는듯그부르지지는광경은 참아볼수업스며 이광경을본 여러유지와광천면소에서는 식사를 공급하게되엿는데 이십이삼양일 동안에 식사공급한호수가 백여호나되며 인수는 오백여인에달하엿더라

團體消息

◇革友靑年同盟總會 시내공평동일백인십일번디에잇는혁우청년동맹(革友靑年同盟)에서는창립이후륙칠개월동안이나 지냇스나 당국의집회금지로 말미암아 집회를못하던중 비로소지난이십오일오후두시에본회관내에서 뎨일회림시총회를열고 규측통과와 위원선거며 기타여러가지를토의하엿다하며선거위원은 다음과갓다고

金顯中 李鍾禹 朴猛 金?吉 金顯大 朴二淳 金?鍾

◇自動車相助會發會式 시내조선인 자동차업자(朝鮮人自動車業者)로조직된고려자동차상조회(高麗自動車相助會)의발회식(發會式)은 지난삼월창회 설립당시에 거행할것이엇스나 그간국장(國葬)으로인하야연긔되엿던데 작일오후여섯시에 식도원(食道園)에서관민유지다수를초대하야발회식을거행한다고